

Original Article

남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 우선순위 선정 연구

김동수¹, 김종현², 임수정³, 이은희⁴, 안은지⁵, 권오민^{6*}

¹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교수, ²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 ³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행정원
⁴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선임연구원, ⁵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원, ⁶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책임연구원

Study on Priorities of South-North Korea Traditional Medicine Cooperation Project

Dongsu Kim¹, Jong-hyun Kim², Sujeong Im³, Eunhee Yi⁴, Eunji Ahn⁵, Ohmin Kwon^{6*}

¹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²College of Oriental Medicine, Gachon University
³KM Policy Te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⁴KM Policy Te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⁵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⁶KM Data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riorities for candidate projects so that future inter-Korean traditional medicine cooperation can be promote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elphi-AHP method to derive priorities for the inter-Korean traditional medicine cooperation project. First, 33 candidate projects were selected through a data survey. In addition, the priority importance score was calculated through a 2-round mini-Delphi survey of 20 experts. The importance of 33 candidate projects was calculated by thre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weights for these three evaluation criteria were derived through the AHP method.

Results: As for the weight by item, 'feasibility' was the highest with 0.6749 points, followed by 'social ripple effect' (0.1811) and 'instrumentality' (0.1439).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importance score by reflecting the weight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project, the South's sole project, "Understanding the Status of North Korea's Korean Medicine," was the top priority,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Inter-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Cooperation."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experts now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the highly feasible South Korean independent project in the field of traditional medicine between the two Koreas. Thi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promoting cooperative projects in the event of future changes in the inter-Korean situation.

Key Words :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Policy, Policy Priority, Delphi-AHP, Survey

서론

한국의 전통의학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구축해온 의학으로 분단 이후에는 남북이 개별적으로 전통 의학을 발전시켜왔다. 북측은 의료의료서비스의

80%를 고려의학과 민간요법이 담당하며, 특히 약초 자원을 활용한 고려약재 생산에 힘쓰고 있다.¹⁾ 남측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이 일부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임상근거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통신기술(ICT)와 융합하는 디지털

• Received : 25 January 2023

• Revised : 12 February 2023

• Accepted : 14 February 2023

• Correspondence to : 권오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82-42-868-9606, E-mail : fivemink@kiom.re.kr

화를 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남북 전통의학 협력사업은 상호호혜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전통의학 분야는 남북 간 이질감이 적은 영역인 동시에 상호 지속발전이 가능한 영역인 것이다.

또한 남북 전통의학분야는 보건의료라는 공익적 특성을 가진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남북 관계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이다. 실제 남북 교류협력에서 전통의학분야는 공유하고 있는 민족 동질성이 높아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의학 관련 민간단체가 15차례 방북하였으며, 학술대회 및 토론회에도 3차례(2003년, 2006년, 2009년) 참가한 바가 있다.

이러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 추진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고려의학과 관련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려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고려의학의 제도와 역사에 관해 파악하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1,7,12)} 최근에는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⁶⁾이 제기되었으며, 고려의학 관련 학술 저널의 공저자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한의 고려의학 연구현황을 파악한 연구¹⁰⁾도 진행되었다.

전통의학분야 외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천문분야, 광물자원분야 등 남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북측의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남북 협력의 과제와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9,11)} 특히 남북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법(FGI)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남북 과학기술 교류분야를 선정한 연구가 있다.⁸⁾ 이와 같이 전통의학분야에서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과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통의학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 협력사업으로는 남북 학술교류 사업, 북측 지원 사업, 산업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남

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남북 전통의학 협력 후보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우선순위 도출시 남북 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 시급성, 사회적 파급성에 따라 후보 사업을 평가할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텔파이 조사시 패널의 수는 10-15명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다.¹³⁾ 본 연구에서는 남북 전통의학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남북 협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 전통의학 협력의 전문가라면 북측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남측의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북 협력 전문가 중 한의계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를 적절히 할당하고자 하였다. 이 중 한의계 전문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19년 남북 전통의학 협력 연구의 자문위원회로 활동하였던 전문가와 남북 협력 기관(어린이약품지원본부, 통일보건의료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남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과학기술계 전문가는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의 주요 구성원에게 본 설문조사 참여 의향을 물어본 후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는 역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 자문위원 중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남북 협력 기관 근무 및 남북 보건의료 협력 연구 경험자이다. 최종적으로 한의계 전문가 12인, 과학기술 전문가 5인, 보건의료 전문가 3인의 총 20인이 선정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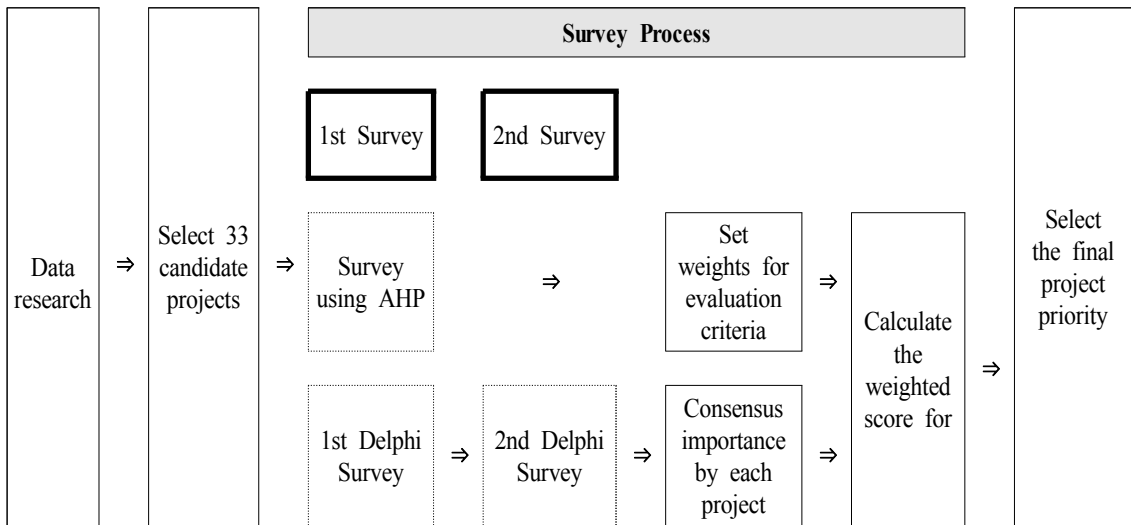


Fig. 1. Survey Proces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Thomas L. Saaty²⁾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이며, 다수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의사결정 계층구조의 요소간 쌍대비교를 통하여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설계된 방법이다.¹⁴⁾ 따라서 다양한 정책, 사업 등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HP는 전문가간의 상호작용과정이 부족하여 자칫 소수 전문가의 급진적인 의견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고 조사 대상자에게도 개인의 의견만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AHP 기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전문가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델파이 조사를 결합하는 AHP-델파이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의견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룹 의사결정 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³⁾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간 합의에 기초한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AHP-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는 우선 남북 전통의학 협력 후보 사업으로 3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33개 후보 사업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

류·협력 방안』⁴⁾에 포함된 협력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일부 추가하였다. 각 후보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앞의 연구가 대부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지면의 한계로 본 논문에선 따로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미니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 33개 사업의 우선순위 중요도 점수 산출을 위해 3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AHP 기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1차 조사에서 33개 사업의 중요도 점수를 평가기준별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가 종료된 이후 1차 조사 시의 조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중앙값과, 각각의 대상자 본인이 응답한 결과를 문항별로 조사 대상자 각자에게 제시하여 다른 조사 대상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별 중요도 점수를 대상자 응답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즉 사업별 중요도는 가중치가 반영된 3개의 평가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는 2022년 3월 11일부터 3월17일까지, 2차 조사는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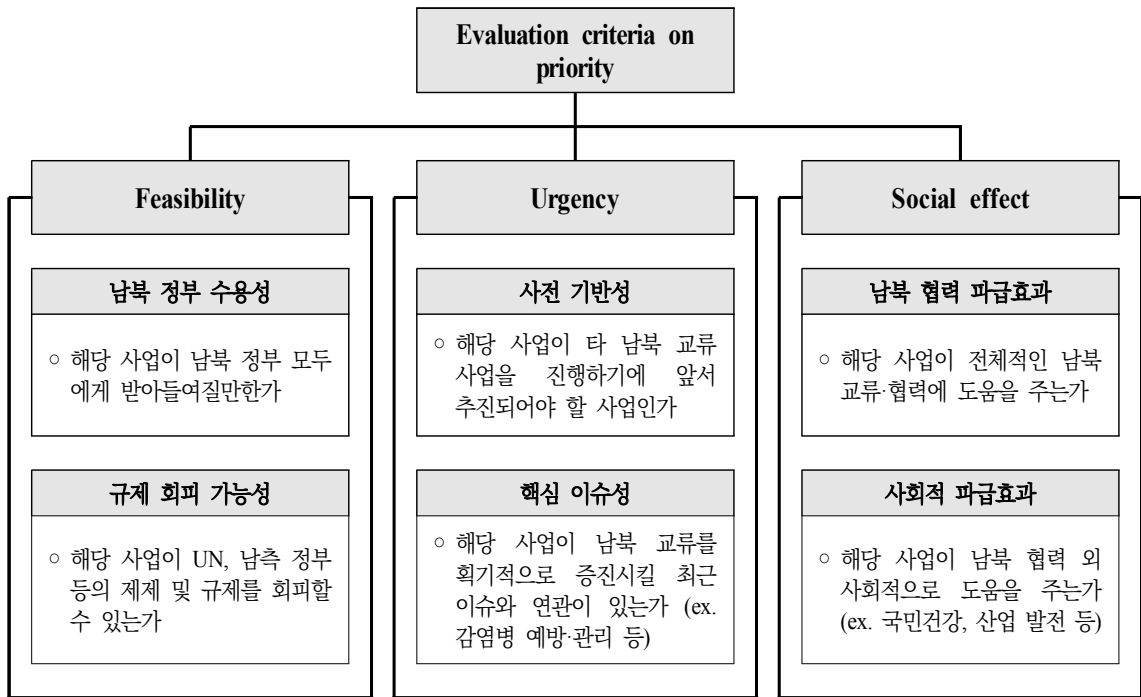


Fig. 2. Evaluation criteria on priority in cooperation projects in traditional medicine between the two Koreas

3. 조사 내용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남북 전통의학 협력 후보 사업을 선정하였다. 후보 사업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⁴⁾에 포함된 협력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일부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업 특성별로 남측 단독, 남북 학술 교류, 북측 지원, 남북 산업 교류, 남북 공동 연구개발의 5개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남측 단독 사업 9개, 남북 학술 교류 사업 4개, 북측 지원 사업 9개, 남북 산업 교류 사업 5개, 남북 공동 연구개발 사업 6개, 총 33개 사업을 도출하였다. (Table 1)

AHP 기법을 통해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우선순위 도출에 활용할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평가기준은 실현 가능성, 시급성, 사회적 파급성의 세가지로 구성하였다. 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치 도출을 위해 3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쌍대비교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은 두 가지 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하여 중앙의 1(‘동등함’)을 중심으로 중요도가 큰 기준에 1-9 사이를 응답하게 된다. (Figure 2)

세부 사업별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33개 사업별로 3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7점 척도를 중요도를 ‘매우 낮음’(1점)부터 ‘매우 높음’(7점)까지 구성하였으며 중간값은 ‘보통’(4점)이다.

4. 분석방법

AHP는 쌍대비교를 통해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산출하여 중요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응답결과 각 대안들이 중요도 순서에 따라 일관성있게 결정되어야 의미있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AHP의 이러한 응답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측정하여 20% 이하인 응답만을 유효한 응답으로 인정하고 20%를 초과한 응답은 해당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일관성 비율이 10%보다 작으면 이성적 평가, 20% 이하이면 용납할 수 있는 평가로 인정된다(Saaty

TL, 1983). 일관성 비율은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난수지수(RI, Random Index)로 나눈 비율이다.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기하평균법, 고유치법, 간이계산법 등이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기하평균법을 사용한 가중치 산출법을 사용하였다. 기하평균법

Table 1. North-South Korean Traditional Medicine Cooperation Project

Classification	Project name
남측 단독 사업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센터’ 건립 남측의 ‘북 고려의학 현황 파악’ 연구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전문가 포럼’ 정기적 개최 남측의 ‘고려의학 용어사전’ 편찬 남측의 ‘북 고려의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남측의 ‘북 고려의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 남측의 ‘고려의학 정보 센터’ 건립 남측의 ‘남북 통일 대비 전통의학 통합방안’ 연구
남북 학술교류 사업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 추진 삼각(남, 북, 제3국) 협력을 통한 남북 전통의학 학술대회 개최 남북 전통의학 학술대회 정기적 개최 남북 전통의학 지식공유 사업 추진
북측 지원 사업	한약재 지원 한약제제 지원 한의진단·치료기기 지원 한의치료도구(침·뜸·부항 등) 지원 기타 물품(소독약, 거즈 등) 지원 한의 서적 지원 침 공장 건립 지원 한약재 공장 건립 지원 고려의학 병원 건립 지원
남북 산업 교류 사업	개성공단내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 개성공단내 전통의약 병원 설립 개성공단내 남북 공동 전통의약 협력 센터 설립 남북 한약재 공동 재배단지 설립 북측 전통의약 기술 산업화 추진
남북 공동 연구개발 사업	남북 공동 전통약 개발 사업 남북 공동 전통의료기술 개발 사업 남북 공동 전통진단·치료기기 개발 사업 남북 공동 ‘한반도 한약자원 발굴’ 사업 남북 공동 한약자원 생산·재배 기술 개발 사업 남북 공동 전통의학 표준화 위원회 운영

은 먼저 조사 대상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대안의 응답 값들을 기하평균하여 통합한다. 그리고 이 통합한 값들을 요소로 하는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한다. 이 쌍대비교행렬의 행과 열은 각 대안이 위치하며 행의 합으로 대안의 가중치를 구한다. 이 행렬의 수준별로 대안의 가중치를 구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수준의 상위 수준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여 대안의 가중치를 도출하게 된다.⁵⁾ 본 연구는 각 수준별 응답 가중치를 구한 후 해당 상위 수준의 가중치를 곱하여 후보 사업의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 특성

조사 대상자는 총 20명이며 이 중 30대가 1명, 40대가 9명, 50대가 10명이었으며, 전문분야로는 한의

계가 12명, 과학기술계가 5명, 보건의료계가 3명이었다. 전공분야는 한의학이 12명, 공학 및 기초과학이 4명, 사회과학이 3명, 의학이 1명이었다. (Table 2)

2. 평가기준 가중치

전문가들의 평가기준에 대한 AHP 조사결과를 취합 후 조사자의 응답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척도인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분석한 후 0.2 이상으로 조사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2명의 응답을 제외하였다. 보통 AHP 평가결과 일관성 비율이 10%보다 작으면 이성적 평가, 20% 이하이면 용납할 수 있는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율이 20% 이상인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각 항목별 가중치는 ‘실현가능성’이 0.67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파급성’ (0.1811), ‘시급성’ (0.1439) 순이었다. (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N	%	
Sex	Male	15	75.0
	Female	5	25.0
Age	30s	1	5.0
	40s	9	45.0
	50s	10	50.0
Field(Profession)	Korean medicine	12	60.0
	Science and technology	5	25.0
	Hhealth and medical	3	15.0
Subject	Korean medicine	12	60.0
	Engineering & basic science	4	20.0
	Social science	3	15.0
	Western medicine	1	5.0
Total		20	100.0

Table 3. Weight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cooperation projects in traditional medicine between the two Koreas

	Feasibility	Urgency	Social effect
Weighted Value	0.6749	0.1439	0.1811

3. 남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 우선순위

편찬 순이었다. (Table 4)

1) 최종 순위

사업별로 평가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 남측 단독 사업인 ‘북 고려의학 현황 파악’연구가 1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연구, ‘고려의학 용어사전’

2) 남측 단독 사업 우선순위

남측 단독 사업 중에서는 ‘북 고려의학 현황 파악’연구가 1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연구, ‘고려의학 용어사전’편찬 순이

Table 4. Final priority of cooperation projects in traditional medicine between the two Koreas

Priority	Category
1	남측의 ‘북 고려의학 현황 파악’ 연구
2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3	남측의 ‘고려의학 용어사전’ 편찬
4	남측의 ‘북 고려의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5	남측의 ‘남북 통일 대비 전통의학 통합방안’ 연구
6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전문가 포럼’ 정기적 개최
7	남측의 ‘북 고려의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
8	남측의 ‘고려의학 정보 센터’ 건립
9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센터’ 건립
10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 추진
11	삼각(남, 북, 제3국) 협력을 통한 남북 전통의학 학술대회 개최
12	남북 공동 ‘한반도 한약자원 발굴’ 사업
13	기타 물품(소독약, 거즈 등) 지원
14	남북 공동 한약자원 생산·재배 기술 개발 사업
15	한의학치료도구(침·뜸·부항 등) 지원
16	한의 서적 지원
17	한약제제 지원
18	남북 공동 전통의학 표준화 위원회 운영
19	남북 전통의학 지식공유 사업 추진
20	남북 한약재 공동 재배단지 설립
21	남북 공동 전통약 개발 사업
22	남북 공동 전통의료기술 개발 사업
23	북측 전통의약 기술 산업화 추진
24	한약재 지원
25	고려의학 병원 건립 지원
26	한의진단·치료기기 지원
27	한약재 공장 건립 지원
28	개성공단내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
29	남북 전통의학 학술대회 정기적 개최
30	개성공단내 남북 공동 전통의약 협력 센터 설립
31	남북 공동 전통진단·치료기기 개발 사업
32	침 공장 건립 지원
33	개성공단내 전통의약 병원 설립

었다. 남측 단독 사업 후보 9개의 중요도 산술 합산 평균은 5.52로 조사되었으며,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센터’ 건립은 제외하고 모두 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3) 남북 학술교류 사업 우선순위

남북 학술교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 추진이 1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삼각(남,북,제3국)협력을 통한 남북전통의학 학술대회개최, 남북 전통의학 지식공유 사업 추진 순이었다. 해당 범주 4개 사업의 중요도 단순 합산 평균은 4.26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4) 북측 지원 사업 우선순위

북측 지원 사업 중 우선순위 결과 기타 물품(소독약, 거즈 등) 지원이 1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한의치료도구(침, 뜸, 부항 등) 지원, 한의 서적 지원 순이었

다. 해당 범주 9개 사업의 중요도 단순 합산 평균은 3.88로 조사되었다. (Table 7)

5) 남북 산업 교류 사업 우선순위

남북 산업 교류 사업의 우선순위 결과 남북 한약재 공동 재배단지 설립이 1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북측 전통의학 기술 산업화 추진, 개성공단 내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 순이었다. 해당 범주 9개 사업의 중요도 단순 합산 평균은 3.65로 조사되었다. (Table 8)

6) 남북 공동 연구개발 사업 우선순위

남북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결과 남북 공동 ‘한반도 한약자원 발굴’사업이 1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남북 공동 한약자원 생산·재배 기술 개발 사업, 남북 공동 전통의학 표준화 위원회 운영 순이었다. 해당 범주 9개 사업의 중요도 단순 합산 평균은 4.01로 조사되었다. (Table 9)

Table 5. Priority of South Korea's sole projects

Priority	Category	Importance (score)				Overall Ranking
		Feasibility	Urgency	Social effect	Total	
1	남측의 ‘북 고려의학 현황 파악’ 연구	6.33	5.72	5.00	6.00	1
2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6.17	5.78	4.89	5.88	2
3	남측의 ‘고려의학 용어사전’ 편찬	6.06	5.28	4.89	5.73	3
4	남측의 ‘북 고려의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5.67	5.28	5.39	5.56	4
5	남측의 ‘남북 통일 대비 전통의학 통합방안’ 연구	5.78	5.00	5.11	5.55	5
6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전문가 포럼’ 정기적 개최	5.50	5.00	5.56	5.44	6
7	남측의 ‘북 고려의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	5.33	4.78	5.06	5.56	7
8	남측의 ‘고려의학 정보 센터’ 건립	5.17	4.94	5.33	5.16	8
9	남측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센터’ 건립	4.72	4.78	5.56	4.88	9

Table 6. Priority of the two Koreas Academic Exchange Projects

Priority	Category	Importance (score)				Overall Ranking
		Feasibility	Urgency	Social effect	Total	
1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 추진	4.78	5.72	5.06	4.86	10
2	삼각(남,북,제3국)협력을 통한 남북전통의학 학술대회개최	4.17	5.78	5.61	4.60	11
3	남북 전통의학 지식공유 사업 추진	3.44	5.28	5.11	3.95	19
4	남북 전통의학 학술대회 정기적 개최	2.94	5.28	5.28	3.61	29

고찰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남한이 남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0.6749). 반면 사업의 시급성에 0.1439, 사회적 파급성에 0.1811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가

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간 추진되었던 남북협력 사업들이 여러 외적, 내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외적 요인으로는 남북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가 대표적일 것이고, 내적 요인으로는 남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을 선정할 때 주로 남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

Table 7. Priority of the North aid projects

Priority	Category	Importance (score)				Overall Ranking
		Feasibility	Urgency	Social effect	Total	
1	기타 물품(소독약, 거즈 등) 지원	4.11	5.00	4.94	4.39	13
2	한의치료도구(침·뜸·부항 등) 지원	3.83	4.78	4.72	4.13	15
3	한의 서적 지원	4.22	3.83	3.78	4.09	16
4	한약제제 지원	3.82	4.53	4.65	4.07	17
5	한약재 지원	3.56	4.06	4.39	3.78	24
6	고려의학 병원 건립 지원	3.00	4.56	5.56	3.69	25
7	한의진단·치료기기 지원	3.39	4.28	4.28	3.68	26
8	한약재 공장 건립 지원	2.89	4.67	5.61	3.64	27
9	침 공장 건립 지원	2.83	4.06	5.22	3.44	32

Table 8. Priority of Industrial Exchange Project between the two Koreas

Priority	Category	Importance (score)				Overall Ranking
		Feasibility	Urgency	Social effect	Total	
1	남북 한약재 공동 재배단지 설립	3.44	4.44	5.44	3.95	20
2	북측 전통의학 기술 산업화 추진	3.39	4.39	5.11	3.84	23
3	개성공단 내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	3.00	4.06	5.61	3.62	28
4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3.00	4.17	5.44	3.61	30
5	개성공단 내 전통의학 병원 설립	2.61	3.61	5.33	3.25	33

Table 9. Priority of a joint R&D project between south-north Korea

Priority	Category	Importance (score)				Overall Ranking
		Feasibility	Urgency	Social effect	Total	
1	남북 공동 ‘한반도 한약자원 발굴’ 사업	4.06	5.28	5.89	4.56	12
2	남북 공동 한약자원 생산·재배 기술 개발 사업	3.67	4.83	5.50	4.17	14
3	남북 공동 전통의학 표준화 위원회 운영	3.50	4.67	5.11	3.96	18
4	남북 공동 전통약 개발 사업	3.28	4.78	5.56	3.91	21
5	남북 공동 전통의료기술 개발 사업	3.44	4.11	5.22	3.86	22
6	남북 공동 전통진단·치료기기 개발 사업	3.11	4.00	5.06	3.59	31

한 주민을 지원하는 물품 전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혹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북한 정권은 북한 전통의학의 산업적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 후보 33개 사업 중 남측 단독 사업인 ‘북 고려의학 현황 파악’연구가 1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연구, ‘고려의학 용어사전’ 편찬이 3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 분석결과,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현재 남한이 북한의 전통의학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먼저 북한의 전통의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 전략 수립하고,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려의학 용어사전’ 편찬이 3순위로 선정된 것도 북한과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북한 전통의학의 학술적 현황에 대한 파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북 전통의학 협력 후보 사업의 범주별 중요도 평가를 살펴보면, 남측 단독 사업 후보 9개의 중요도 산술 합산 평균은 5.52로 조사되었으며, 이어 남북 학술교류 사업 후보 사업 4.26, 남북 공동 연구개발 사업 후보 4.01, 북측 지원 사업 우선순위 3.88, 남북 산업 교류 사업 후보 3.65로 조사되었다. 남북 전통의학 협력을 위해선 효과적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적 특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어 연구개발과 같이 정치군사적 상황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북 산업 교류 사업이 가장 낮은 3.65로 조사되었다. 2019년 1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 전통 약제기업인 동인당 제약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북한 정권은 고려의학의 산업화에 깊은 관심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는 남측이 남북 전통의학 협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야와, 북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남북이 전통의학 협력 사업에 합의하고 추진하려면 이런 견해차의 이유에 대한 차후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성격의 북측 지원 사업 후보도 다른 협력 범주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3.88). 지금까지 남측이 추진한 남북 전통의학 사업이 주로 지원사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의 남북 전통의학 사업이 활동가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다양한 분야, 즉 한의계, 과학기술계, 보건계 전문가를 포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추진했던 협력 사업이 본 조사에서도 출된 협력 사업 우선순위 후보와 상이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의계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보건 의료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조사결과이다. 비교적 소규모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주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참여자가 비교적 소수라는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가 주로 전문가적 시각을 반영하는 남북협력 우선순위가 되었을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구조화된 설문이든, 반구조화 설문이든 보다 대규모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조사된 결과도 패널 구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전통의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 및 추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남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20명의 남북 전통의학 협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AHP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평가기준은 ‘실현가능성’이 0.67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파급성’ (0.1811), ‘시급성’ (0.1439) 순이었다. 사업별로 평가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 남측 단독 사업인 ‘북 고려의학 현황 파악’연구가 1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연구, ‘고려의학 용어사전’편찬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전통의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 및 추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북한 전통의과학 데이터 구축 및 남북 협력 계획 수립 연구(NSN2111200)’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정책기반연구(KSN2021422)’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Kim D. The History of Koryo Medicine System and Policy in North Korea. *Korean Herbal Medicine Informatics*, 2021;9(1):45-56. <https://doi.org/10.22674/KHMI-9-1-4>
2. Saaty TL. Priority setting in complex problem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1983;30(3):140-155. <https://doi.org/10.1109/TEM.1983.6448606>
3. Kim HS, Cho YH. Weighting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Quality Indicators using Delphi Method.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4;28(3), 565-573.; <https://doi.org/10.5932/JKPHN.2014.28.3.565>
4. Linstone HA, Turoff M.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Newark: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2002. <https://doi.org/10.2307/3150755>
5.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urrent status of Koryo-medicine and cooperation strategy in south-north Korean traditional medicine. 2020.
6. Moon, J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Priority for Standardization of Korean Medicine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of Daejeon: 2017.
7. Kim S, Son JA, Park SM. Standardizing of Medicine Termi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Future Management Plan.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20;24(3): 15-25. <https://doi.org/10.25153/spkom.2020.24.3.002>
8. Shin DW. Traditional Medicine in North Korea, 1945 - 1960.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2003;25(2):147-176.
9. Son JY, Kim SJ, Lee JJ. Strategic Approach for South-North Korea's S&T Cooperation.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017;20(1):153-174.
10. Yang HJ, YIM IS, Jung TH, Minh YC, Lee KS, Choi HK. Preliminary Study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ield of Astronomy I. *Publications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2016; 31(3): 57-63. <https://doi.org/10.5303/PKAS.2016.31.3.057>
11. Oh JH, Yi EH, Lee JY, Kim D. A Network Analysis of Authors and Keywords from North Korean Traditional Medicine Journal, *Koryo*

- Medicine. 2021;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5(2): 33-43. <https://doi.org/10.25153/spkom.2021.25.2.003>
12. Chung WJ. Mineral Resource Industry of North Korea and Two Korea's Co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2019;56(2):204-211. <https://doi.org/10.32390/ksmer.2019.56.2.204>
 13. Han CH, Park SH, Shin MS, Choi SM. The transition and medical system of Traditional Medicine in North Korea. Korea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7;13(2):37-45.
 14. Seo, WS., Lee, HS. A Study of Policy Priorities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20; 40(3):315-35 <https://doi.org/10.15709/hswr.2020.40.3.315>
 15. Joe KT. Analytic Hierarchy Process by leading leaders. Donghyun publisher. 2003.

ORCID

- 김동수 <https://orcid.org/0000-0001-9177-7277>
 김종현 <https://orcid.org/0000-0002-5269-1080>
 임수정 <https://orcid.org/0000-0002-1187-8092>
 이은희 <https://orcid.org/0000-0002-9221-5345>
 안은지 <https://orcid.org/0000-0001-6031-5942>
 권오민 <https://orcid.org/0000-0001-5032-1425>